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는 광양

평균 연령 37.3세...19세 이하 비율은 전국 1위 교육에 매년 100억 투자 등 보육환경 개선 효과

광양시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가장 낮고, 0~19세 인구비율은 높았다.

광양의 평균은 37.3세로 전남 평균 43.1세보다 낮으면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평가됐다. 시 단위 평균 연령은 목포 38세, 순천 38.5세, 여수 40.1세, 나주 46.1세 등이었다.

전국 평균 연령은 39.5세이고 17개 시도 중 가장 젊은 도시는 울산으로 37.5세이다. 이와 함께 19세 이하 영유아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광양시가 높게 나타났다.

광양의 영유아(7세 이하) 비율은 전국 평균(7.2%)이나 전남 평균(6.6%)보다 높은 8.7%로 전남에서 가장 높았다. 청소년(19세 이하) 비율도 16.3%로 전국(13.4%)이나 전남(13.2%), 광주광역시(16.1%)보

다 높게 나타났다.

또 전국 시 단위에서 광양시와 행정력이 비슷한 12개 시와 비교했을 때 영유아 비율은 경기도 오산시(11.4%)와 충남 당진시(9.1%)에 이어 3위이며, 청소년 비율에서 2위인 오산·양주시(14.7%)보다도 월등히 높은 16.3%로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광양이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평가된 이유는 꾸준히 투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정주권 개발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매년 100억원씩 총 1217억원 투자를 비롯해 보육사업에 매년

400억원, 주택 보급률 111.7%, 매년 150여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로 실물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개선 등 공격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로 보고 있다.

광양시는 내년도 교육 관련 사업에 122억원, 보육사업에 401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모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도시 조성이 최우선 목표”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광양시가 전남 경제를 이끌어가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 '진월 전어잡이소리' 시연회
광양 진월 전어잡이 보존회(회장 서형일) 회원들이 지난 19일 광양시 진월면 신담마을 회관에서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남도 무형문화재(제57호) 지정 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진월 전어잡이소리'는 광양만 어민들이 불렀던 어로(漁撈) 민요이다. <광양시 제공>

새만금에 터 잡은 황새, 현황조사·보호대책 필요

〈멸종위기 1급〉

풍부한 먹이 등 서식조건 좋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환경부) 및 천연기념물 제199호(문화재청)로 지정된 황새(사진)가 최근 새만금 사업지역인 군산시 만경강 하구와 부안군 곰소만 등 전북 서해안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월동 황새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22일 군산시 철새조망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만금지역 만경강 하구(군산시 옥구읍) 갈대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황

새 3개체를 확인했다. 과거 전북 지역의 황새 도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과 곰소만 지역 등 반경 40km 이내 지역에서 월동 개체가 최대 12개체(2008년) 정도가 매년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새조망대는 과거 곰소만 부안군 출포면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던 황새가 최근 들어 만경강 하구에서 관찰이 늘고 있어 만경강 하구 습지지역이 황새의 서식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철새조망대는 겨울을 나기 위해 전북 서해안을 찾는 황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황새의 월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철새조망대 한성우 학예연구사는 “황새는 물고기를 비롯해 곤충류, 개구리, 들쥐, 파충류 등 동물성 먹이를 주로 먹는 종인데, 겨울철 만경강 하구 습지를 찾는 것은 황새에게 안전한 먹이터와 월동장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황새가 전북 서해안 전체를 폭넓게 월동 장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보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산=박영진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달하곰 색소폰 오케스트라'(단장 안용순)가 지난 20일 정읍 YMCA 청소년수련관에서 첫 연주회를 열고 있다.

정읍 '달하곰 색소폰 오케스트라' 첫 공연

아마추어 30명으로 구성

정읍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색소폰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달하곰 색소폰 오케스트라'(단장 안용순)는 지난 20일 정읍 YMCA 청소년수련관에서 첫 연주회를 가졌다.

30여명으로 구성된 색소폰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8년 색소폰의 감미로운 선율에 매혹된 애호가 몇 사람으로 출발한 '종로 색소폰동호회'에서 출발했다. 단원들은 지난 9월 창단식을 갖고 3개월여 동안 강도 높은 연습을 거쳐 이번에 첫

연주회를 열게 됐다.

연주회에서는 '장미축전(Carnival of Roses) 서곡'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캐럴, 포크송 메들리 등을 독주와 특별연주로 들려줘 감동을 받았다.

안용순 대표는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도시' 정읍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배제가요 정음사(井音詞)의 첫 구절을 빌려 '달하곰'으로 연주단 이름을 정했다”며 “앞으로 활발한 연주를 통해 문화도시 정읍을 널리 알리는 색소폰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요천강 100리 숲길' 추진

2018년까지 50억 투입

남원시는 오는 2018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시내를 감싸 흐르는 요천을 따라 '요천강 100리 숲길'을 조성한다.

남원 요천이 흐르는 송동에서 산동까지 40km 구간에 만들어지는 이 숲길에는 살구나무를 중심으로 한 나무 4만 그루

와 함께 철쭉, 개나리, 꽃양귀비 등을 심는다. 시민과 관광객이 쉬 수 있는 쉼터와 의자 등도 곳곳에 설치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100리 숲길이 완성되면 아름다운 하천을 따라 걸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정규식기자 jgs@

순창군 국비 1123억 확보 신규사업 탄력

금돼지권역 정비 등 45개

순창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최종 1123억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은 “올해 적성 금돼지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순창읍 남계 신규마을 조성사업,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공모사업 등 45개 신규 사업에 총 1123억원의 국가예산을 최종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모든 부서가 자체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신규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하고 황송주 군수 주관으로 국가예산확보 전략 보고회를 수차례 열어 선

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8대 분야 45개 사업과 관련해 12개 사업 553억원을 확보한 점이다.

이밖에도 용평산 미르숲 조성, 자생식물원 조성,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대서정실화 치유마을 조성사업에도 국비를 확보해 순창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개발과 ICT(정보통신기술) 힐링거점 조성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등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3.5억 (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현영

대지, 전용기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1억(사옥,병원,오피스텔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회산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500원, 6,663㎡ (조정가, 아적장 주차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